



52

용접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결핵성 흉막염

성별	남	나이	46세	직종	용접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박○○(남, 46)은 21년 간 D조선(주)에서 초기 약 8년 간은 의장작업을 한 후 13년 간 용접작업을 하다가 2003년 3월 I대학병원에서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박○○은 24세 때인 1981년 8월 11일 D조선(주) 의장부에 입사하여 목의장 및 선실의장 작업을 하다가 1990년 1월 9일부터는 조립부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. 발병 당시 조립2부 소조과 소속으로서 공장(Shop) 내에서 주야 2주씩 교대로 CO₂ 용접, 가우징, 사상 작업 등을 하였으며, 선체 부품(블록)의 탱크 등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도 용접을 하였다. 발병 직전 3개월 간은 해양플랜트(시추선)인 BP 6036호에서 비파괴검사를 통해 파악한 용접상태 불량 부위를 가우징한 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, 이 작업은 평소 작업보다 작업 강도가 강하였다고 한다. 각종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수 년 전까지는 용접 후에 도료 터치업 작업도 하였다. 박○○의 부서 및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작업환경측정에서 (산화철)분진 및 용접흄 노출수준은 노출기준을 월등히 초과하였다.



3 의학적 소견

2003년 3월 22일(토) 고열과 오한 및 좌측 흉통이 시작되어 25일 D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좌측 흉막삼출이 발견되어 입원하여, 27일 흉강천자를 실시한 후 흉막삼출액 검사에서 결핵성 흉막염에 합당한 소견이 나타나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. 그러나 흉막삼출액이 계속 증가하여 4월 3일 I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, 4월 4일 실시한 흉막 조직검사에서도 결핵에 합당한 소견이 나타나 흉관 삽입 후 계속 항결핵제를 투여하다가 4월 15일 퇴원한 후 D병원에서 투약하고 있다.

4 결 론

박○○은

- ① 결핵균에 감염된 후 발생하는 결핵성 흉막염으로 확진되었고,
 - ② 과거 13년 간 분진 및 흙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용접작업을 하였으나,
 - ③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폐결핵 유병률이 높은 반면,
 - ④ 고농도 분진 및 흙에 노출된다고 해서 결핵균에 감염되지도 않고 세포매개성 면역기능이 저하된다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으므로,
- 과거 종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.